



국가어항인 여수 낭도항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구역으로 재정비된다. 사진은 국가어항 낭도항.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다리 연결 여수 낭도항 관광지 거듭난다

낭도대교 개통 이후 관광객 급증 250억 들어 여객부두·어항 등 어항시설 관광구역으로 재정비

등 기존 어항시설을 관광구역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물양장과 호안시설, 배후부지도 새로 만들어 어항구역을 정비하기로 했다.

약천후 때 어선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어업 전진 기지로 활용했던 여수시 화정면 낭도항이 관광구역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국가어항인 낭도항은 어업활동 지원 기지로 이용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올해 고흥군 영남면과 여수시 화정면을 연결하는 낭도대교가 개통되면서

낭도는 육지와 연결됐다. 낭도대교 개통이후 낭도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낭도는 육지와 연결됐다. 낭도대교 개통이후 낭도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3000~4000명이 찾아 지역특산물인 낭도막걸리를 사거나 등산을 즐기는 새로운 명소가 떠오르고 있다.

순천시, 동천 출렁다리 불법하도급 업체 3곳 고발

"바닥재 보행 불편" 민원에 보강 후 9월 초 개장기로



순천 동천 출렁다리 경관 개선 조감도.

순천시가 동천 출렁다리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하도급(광주일보 7월20일자 11면)과 관련해 업체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을 불러 조사에 들어갔고 밀린 공사대금 2400만원을 원청 업체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순천시는 재하청이 이뤄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초 개장할 방침이다. 동천 출렁다리는 사업비 33억7900만원을 들여 길이 181m, 폭 1.5m 규모로 설치됐다.

순천시는 출렁다리 건설 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불법으로 재하청을 준 사실이 적발돼 업체 3곳을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로 순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광양시, 매실·단감 등 특산물 실태조사

8월6일까지 재배농가 1107곳 대상 생산·판매·유통·경영실태 파악

뽕은감 490)이다. 조사원들은 농가를 직접 방문해 응답자와 면담을 하게 되며,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자기입식, 전화조사 등 비대면조사를 병행할 계획이 다.

광양시가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와 선진 농업정책 마련을 위해 '광양 특산물 실태조사'에 나섰다. 28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호남지방통계청과 함께 다음달 6일까지 '광양 특산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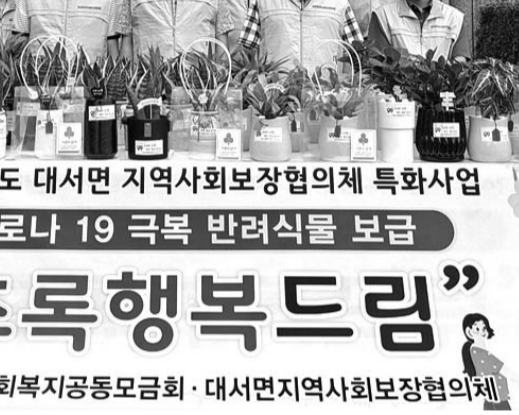
조사 결과는 12월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며, 매실과 감에 대한 발전방향을 마련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광양의 대표특산물인 매실과 단감·뽕은감에 대한 생산·판매·유통·경영실태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난 1년간(2019년 1월1일~12월31일) 지역에서 매실 1000㎡ 이상, 단감·뽕은감 500㎡ 이상을 재배한 농가 1107가구(매실 617, 단감·

광양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조사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조사한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통계 목적 외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 대서면 홀몸어르신 50세대에 반려식물 보급

고흥군 대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형두)는 정서 취약 독거어르신 50세대에 반려식물을 보급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의체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출자제, 경로당 휴관 등 실내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고립감,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하는 홀몸 어르신이 생겨나고 있다.

품 교체 및 맞춤형 특화사업으로 200여명에게 8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홀몸 어르신에게 반려식물을 전달하고 말벗, 안부 살피기를 실시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은 좀더, 희망 캠페인, 개인 후원으로 모인 성금을 기탁받아 운영되며 앞으로도 지역 정서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급 대상자는 협의체 위원과 복지이장 추천으로 선정됐다. 일일이 홀몸 어르신의 집을 방문해 심상한 초록의 식물을 전달하면서 위안을 줬다.

대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난방유 지원 등 특화사업으로 취약계층 15명에게 825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초록행복드림 반려식물 보급 사업을 시작으로 맛있는 나눔, 말벗날 배달, 따뜻한 나눔 생활용

여수시, 코로나19 여파 시민의 날·시민체육대회 취소

참가 선수·시민 안전 고려

시민의 날 기념식은 열지 않지만 코로나19 추이를 고려해 '여수시민의 날'과 '자랑스런 여수인 상' 수여 등 소규모 행사는 진행할 예정이다.

여수시가 올해 여수시민의 날 행사와 제22회 시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 여수시민의 날과 시민 체육대회를 취소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화합과 단결의 장이 되었던 시민의 날과 체육대회가 취소되어 안타깝지만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수시체육회는 시민체육대회의 경우 선수 간 대면접촉이 불가피하므로 참가 선수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청단지점 576-4150